

2023 화성시청소년골든벨 예상 문제

9월 24일(일) 오후 2시, 화성시청소년수련관(유엔아이센터)에서 열리는

2023 화성시청소년골든벨에 출제되는 예상 문제 내용입니다.

퀴즈대회의 변별력을 위해 예상 문제 외 화성시 관련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1등을 위한 공부보다 아님, 우리 동네를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화성시 일반상식

- 화성시의 2023년 8월 기준 인구는 990,651명으로 내국인 934,287명과 외국인 56,364명을 합쳐 인구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다. 특례시 기준인 2년 연속 100만명을 유지한다면 화성시는 2025년 특례시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 화성시는 2001년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되었다.
- 화성시의 시화는 목백일홍이다. 배롱나무꽃인 목백일홍은 나무의 껍질이 매끈하고 굵은 빗줄기와 거센 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꽃 피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날에 꽃이 피어 초록 세상에 100일 동안이나 선명하고 화려한 붉은색을 자랑한다.
- 화성시 농특산물 햇살드리 심벌마크는 햇살이 널리 퍼진다는 우리말인 햇살드리의 의미를 상징화하기 위하여 밝은 햇살이 넓게 퍼지는 기본형태에 하늘의 축복같은 빛의 이미지를 함께한 태양으로 표현하였고, 잎과 열매의 형태가 합쳐진 따옴표 형태는 청정한 자연의 결실이 모여 최고의 농특산물로 탄생함을 의미한다.
- 화성시를 상징하는 새는 도요새이다. 우리시에 날아오는 도요새 중 알락꼬리마도요는 몸집이 크고 화성갯벌에서 관찰하기 쉬워 친근한 대상이다. 봄, 가을 통과기 때 쉽게 볼 수 있고 부리가 길고 휘어져 있으며 국제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 화성시에서는 중생대 백악기 시기의 원시적인 뿔 공룡의 하반신 뼈가 발견되었는데, 국제적인 학술가치가 인정되어 정식학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명칭은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이다.
- 공룡을 상징으로 만든 화성시의 캐릭터 이름은 ‘코리요’이다.
- 화성시는 육지로는 7개 시를 접하고 육지의 경계는 동으로 용인시 남사면, 이동면과 접하고 남으로는 오산시와 평택시의 진위면, 서탄면, 청북면, 포승면과 연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의 수암동 및 용인시 기흥구가 각기 접하고 있다. 오산시 수원시와 경계가 붙어 있는 도시이다.
- 화성시의 로고는 주황색과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주황색이 상징하는 의미는 ‘넘치는 활력과 에너지’, ‘희망과 기쁨’이며, 회색은 ‘균형’과 ‘침단’을 상징한다.
- 코리요에게는 아직 알에서 깨어나지 못한 두 명의 동생이 있는데, 첫째 동생의 이름은 ‘알콩이’, 둘째 동생의 이름은 ‘달콩이’이다.
- 매향리 평화역사관 주변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소년 야구장 ‘화성드림파크’가 있다.

#화성시의 섬

- 화성시 서신면 앞의 작은 섬 제부도는 일명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신비로운 섬이다. '모세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이 바닷길은 하루에 2번 열리는데, 지금은 포장공사를 하여 자동차로 통행할 수 있다.
- 제부도와 서신면 송교리의 구간사이 2.3km의 물길이 하루에 두 번씩 썰물 때면 갈라지며, 6시간 동안 바닷길이 열린다. 밀물과 썰물의 주기적인 현상은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서 뚜렷이 볼 수 있으며, 동해안에서는 미약하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할현상이라고 한다.
- 국화도는 서해바다의 꽃처럼 아름다운 섬으로, 조개의 껍질인 조가비가 국화꽃을 닮아서 지어졌다고 한다. 국화도는 본 섬인 국화도와 작은 섬인 도지섬, 매박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매박섬은 토끼가 살았다고 하여 토끼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화성시의 항구

- 화성시 서부에 위치한 전곡항은 다양한 해양레포츠의 천국으로 불린다. 전곡항에서 요트를 타고 누에섬, 입파도, 도리도, 국화도, 육도, 풍도 등을 둘러 볼 수도 있고, 이곳은 전국 최초로 레저어항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 궁평 해송 숲은 1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곳에 독특한 디자인의 시설인 ‘궁평 오솔(OSOL) 아트 파빌리온’이 설치되었다.

#화성시의 생태명소

- 화성시에서 발견된 코리아 케라톱스를 모티브로 만든 애니메이션의 공룡 캐릭터는 ‘코리요’이다. 2014년 ‘꾸러기 케라톱스 코리요’라는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방영되었다.
- 비봉습지공원은 시화호 수질개선과 자연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화성시와 안산시의 3개 하천 합류부에 조성한 인공습지이다.
- 화성시 ‘우리꽃 식물원’의 자랑은 우리나라 5대명산의 식생대를 재현한 사계절 관으로 한옥형태의 유리온실관으로 조성된 백두대간관은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태백산등 우리나라 5대 명산을 미니어처로 조성해 높이별로 식물생태를 관찰할 수 있게 했다. 우리꽃식물원은 1,600여 종의 많은 토종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 시화호의 물막이 공사로 섬이었던 고정리 일대는 육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곳의 퇴적암층에서 200여개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었고, 이 알들은 중생대 백악기 시대의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시화호 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화석산지 주변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이었다. 공룡알 화석산지 탐방로 주변에는 띠, 산조풀, 통통마디, 위성류, 해홍나물, 칠면초, 나문재, 갯질경, 해당화 등 많은 염생식물과 육지식물이 자라고 있다.



#화성시의 역사

- 1668년 남양도호부 백성들이 병자호란때 순절한 남양부사 윤계의 충절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남양부사 윤계순절비가 있다. 당시 최고의 학자 송시열이 짓고 글씨는 송준길이 썼다.

<남양부사 윤계와 아전들의 이야기>

1636년 12월. 청나라가 압록강를 건너 쳐들어어왔어요. 평양을 지난 청나라 군대가 한양으로 향하자 인조 임금님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는 남양도호부에도 나타났어요. 그러나 남양부사 윤계는 청나라 군대에 맞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관아 뜰 아래에 두 개의 깃발을 마주 세워 놓고 대청마루에 팔짱을 끼고 앉아 산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적이 무릎을 꿇으라고 다그치자 윤계는 “머리를 잘릴지언정 무릎은 구부릴 수 없다.”고 저항하였습니다. 청나라 병사들이 결박하여 끌고 가려고 하자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맹세코 너희를 따르지 않겠다. 왜 빨리 죽이지 않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청나라 병사가 무서운 고문으로 괴롭혔지만 윤계의 꾸짖는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참을 수 없이 화가 난 청나라 병사에 의해 윤계는 마침내 죽음을 맞았습니다.

- 용릉은 사도세자와 그의 비(妃) 헌경의왕후를 모신 왕릉이다. 원래 서울시 배봉산 아래에 있었는데, 정조가 현재의 위치의 화산동으로 옮기고 병풍석과 다양한 석물들로 장식한 아름다운 묘를 조성하였다.
- 건릉은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와 그의 비 효의선황후를 모신 왕릉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1821년 효의선황후가 돌아가셨을 때, 용릉 동쪽 언덕에 모셨던 정조의 묘역을 옮겨와 현재의 위치에 조성되었다.
- 용주사는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만든 사찰이다. 용주사는 《부모은중경》과 가장 인연이 깊은 절이며, 정조대왕의 부모에 대한 그리움, 혹은 은혜를 주제로 한 것이다. 《부모은중경》은 정조대왕이 총애하던 화가 ‘김홍도’가 삽화를 그렸다. ‘김홍도’는 용주사의 삼존불 불화를 직접 그리기도 하였다.
- 화성 당성은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에 있는 성으로 테뫼형과 포곡형을 결합한 복합식 석축 산성이다. 현재 동문·동문·북문의 터와 우물터, 건물지가 남아 있다. 원래 백제의 영역에 속하였던 지역으로, 고구려가 점령하면서 이곳은 당성군 이라는 지명을 붙였다. 전략적 요충지로 백제→고구려→신라 순으로 차지했다. 화성 당성은 신라시대 청해진과 더불어 중국과의 최단거리의 교통로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 남양성모성지는 조선시대에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아 순교한 장소로, 천주교가 전래된 이래로 100여 년 동안 신해박해(1971, 정조) 신유박해(1801, 순조), 기해박해(1839, 헌종), 병오박해(1846, 헌종), 병인박해(1866, 고종)가 있었다. 특히, 병인년 대 박해 때에는 1만 명을 헤아리는 순교자가 났는데, 바로 이 병인년 대 박해 때 남양 도호부에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끌려와 순교하였다. 남양성모성지는 한국교회 최초로 성모마리아의 순례성지로 선포되었다.



- 신빈 김씨는 세종대왕의 후궁으로 신빈 김씨 묘는 화성시청 옆에 자리하고 있는데, 신빈 김씨는 호조에 속한 공노비였다가 13세의 나이로 세종의 왕비인 소헌왕후의 궁인이 되었다. 후에 세종의 승은(承恩, 신하가 임금에게서 특별한 은혜를 입음)을 입어 후궁이 되어, 조선판 신데렐라라고도 불린다. 세종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으며 6남 2녀를 낳았다.
- 신라시대에 선덕여왕의 사촌인 진덕여왕의 불심으로 고구려의 침공을 막아내고자 봉림사를 창건하였다. 봉림사의 극락전에는 보물 980호로 지정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있다.
-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은 서당과 향교, 서원, 성균관이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사립지방 학교로 학문연구와 선현제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에는 안곡서원이 위치하고 있다.
- 기로소(양로원)는 조선시대에 연로한 문신(文臣)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명예기구로, 가입 조건은 70세 이상, 문신, 정2품이다. 현재 남양 풍화당이 유일하게 기로소로 남아있다.
- 매화향기 가득한 갯벌이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었던 매향리는 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1951년에, 주한미군이 공군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후 농섬을 중심으로 사격장이 형성되고 점차 넓어 졌다. 2005년 미 공군 폭격 훈련장이 폐쇄되기 전까지 지역주민들은 소음에 의한 난청, 포탄연기, 농작물의 피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이곳에 평화를 상징하는 '매향리 평화역사관'이라는 전시관이 생겼다.
- 매향리 고온리 사격장의 이름은 쿠니 사격장으로 불리웠는데, 쿠니는 매향리의 옛 지명인 고온리를 잘못 발음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은 3.1운동 당시 제암리와 고주리 일대 일본군의 만행으로 죽임을 당한 주민 분들을 기리기 위한 시설이다. 이 곳 주민들이 발안 장터에서 격렬하게 만세운동을 벌이자 일본헌병 30여명이 4월15일 제암교회로 주민들을 모이게 하여 학살했다. 주민들은 만세운동을 진압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일본군의 거짓말에 속아 도망치지 못하고 교회로 모였는데, 일본군들은 제암리와 고주리 일대가 발안만세운동의 근거지라고 생각하여 학살하였다고 한다. 일본군인들은 제암교회에 주민들을 가두고 총을 쏘고 교회를 불태웠고, 제암교회에서 23명의 주민(남성 21명,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인 2명)이 희생당했고, 고주리에서는 화성지역 천도교지도자였던 김홍열 일가족 6명이 살해를 당했다.
- 제암리 학살사건의 참상은 이 곳을 자전거로 지나던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에 의해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스코필드 박사는 제암리의 참상 증거를 사진으로 남기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보고서를 저술해 전 세계에 이 사건을 폭로했다. 스코필드 박사는 1968년 건국공로훈장을 받았으며, 돌아가신 후에는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스코필드의 한국 이름은 '석호필'이다.
- 화성시에는 여러 곳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중 발안 만세시장은 1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다. 1919년 3월 30일 장날 만세운동이 일어나서 만세시장이라고 지어졌다고 한다.

- 제암리·고주리 사건은 테일러 일행이 우연히 제암리의 참상을 목격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처참한 현장을 목격한 전동례 할머니의 증언으로 23위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누구의 시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안타깝게도 한곳에 묻을 수 밖에 없었다.
- 만의사는 동탄 무봉산에 있는 절로, 서산대사가 한 때 수도했다고 한다.
- 용릉은 조선의 제22대 정조의 아버지인 장조=사도세자(1735~1762)와 그의 비인 헌경왕후 홍씨가 묻힌 곳이다. 1762년 5월 21일 아버지 영조의 명으로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숨졌고, 양주 배봉산 아래의 언덕에 안장 되었다. 영조는 세자의 죽음을 애도 한다는 뜻에서 '사도'라는 시호를 내리고, 묘호를 수은묘라고 하였다.
- 건릉은 조선의 22대 왕 정조와 효의왕후 김씨가 묻힌 곳입니다. 정조는 장조의 아들로 1759년(영조 35년) 세손에 책봉되었으며, 이 무덤은 합장릉으로, 아버지의 무덤인 용릉과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왕이나 사대부들이 죽은 뒤에 그 공덕을 찬양하여 추증하는 호를 시호라고 한다. 화성시 용릉의 주인인 사도세자도 '장조'라는 시호가 있다. 1762년 5월 21일 아버지 영조의 명으로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숨졌다.
- 국보 제120호인 용주사의 범종을 비롯하여 여러 문화재를 볼 수 있는 용주사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사찰로, 정조가 대왕보전 낙성식 전날 밤에 용이 여의주를 물어 승천하는 꿈을 꾸어 이 사찰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만든 사찰인 용주사는 《부모은중경》과 가장 인연이 깊은 절이며, 정조대왕의 부모에 대한 그리움, 혹은 은혜를 주제로 한 것이다. 《부모은중경》은 정조대왕이 총애하던 화가 김홍도가 그렸는데, 김홍도는 용주사의 삼존불 불화를 직접 그렸다. 이처럼 왕위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를 어진화사라고 부른다.
- 정조는 소나무에 송충이가 많아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고 마음 아파하며, 아버님 묘소의 송충이들을 없애버리겠다는 효심으로 송충이를 씹어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 정조는 효의 중요성에 대한 불경인 부모은중경(보물1754호)에 감명 받아 규장각의 주자소에서 목판으로 만들어 용주사에 보관하였다.
- 용주사 '승무' 시비는 조지훈이라는 시인이 상원사를 찾았을 때 승무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마침내 용주사의 행사에 찾아가 바라춤 추는 모습을 보고 쓰게 되었다고 한다. 용주사에서 조지훈이 여승이 춤추는 것을 보고 지은 시의 제목은 '승무'이다.
- 용주사는 보물과 국보가 많은데, 그 중 범종각의 동종은 고려시대 국보 120호다.
- 용주사 대왕보전은 2017년에 보물 1942호로 지정되었다. 중심전각인 정조는 이 대왕보전의 현판 글씨를 썼다고 한다.

#화성시의 인물

- 정도전은 남양부사 중 한사람으로 조선의 기틀은 만든 설계자로 시문집 삼봉집이 있다. 이 분은 중앙의 주요 관직에 주로 임명되었는데 유일하게 임명된 지방 관직이 바로 ‘남양부사’이다. 정도전은 선정을 베풀어 남양부 백성들의 칭송을 들었다고 한다.
- 허임은 화성시 사람으로 조선 시대 침술의 대가이다. 아버지는 관아의 노비였지만 의술을 익혀 국왕의 주치의가 되었다. 뛰어난 의술로 신분도 상승하고 남양부사로도 임명되었다. ‘침구경험방’은 1644년 인조22년에 허임이 쓴 침구에 관한 의서이다.
- 정순조는 남양도호부 선정비의 주인공으로 남양부사로 임명된 후 창고의 곡식을 잘 관리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여 승지로 임명되었다.
- 화성시에서 태어난 음악가인 작곡가 흥난파 선생의 본명은 ‘홍영후’이다. 명곡으로는 ‘봉선화(가사 : 울밑에선 봉선화야 네모양이 처량하다~)’라는 곡이 있는데, 흥난파 선생은 작곡 외에도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도 했다.
- 남이(1443~1468)는 조선 세조 때의 무신으로 아버지는 남빈(태종의 외손자), 어머니는 흥여공으로 남양 흥씨이다. 세조와는 고종사촌의 아들인 셈이다. 이시애의 난과 건주여진 정벌 등에서 공을 세워 세조의 총애를 받았으나 세조가 죽은 후 역모에 몰려 젊은 나이에 처형되었다. ‘남이장군’의 묘는 화성시 비봉면에 있으며 남이섬에도 그의 가묘가 있다. 역모의 원인이 된 남이장군의 시의 문제가 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남이 장군의 시]

백두산의 들은 칼을 갈아 다하고,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 없애리.

사나이 스무 살에 나라 평정 못하면 훗날 누가 대장부라 하겠는가!

시의 마지막 구절에 ‘나라를 평정 못 하면’이 ‘나라를 얻지 못 하면’으로 왜곡되어 알려지면서 역심을 품었다는 죄로 능지처참으로 죽음을 당하였다고 한다. 실제 남이장군의 묘는 비봉에 있으며, 춘천 남이섬 설립자인 수재 민병도 선생이 남이장군의 넋을 위로하고 장군의 기상을 기리기 위해 돌무더기 주위에 봉분을 쌓고 추모비를 세웠다고 한다. 또한 남이섬 지명의 유래는 남이섬 북쪽 언덕의 돌무더기에 남이장군이 묻혀있다는 오랜 민간전승에 기인하여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이라고 한다.

- 1919년 3월 30일 발안 장날 12시 정각 이정근 선생은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결사적인 시가행진을 하였고, 발안주재소 앞에서 일본군의 총검에 무참히 난자당해 장렬하게 순국하였다.
- 김규식은 화성시의 제암리·고주리 사건을 프랑스 파리에서 전해 듣고 이 일을 전 세계에 알리며,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국 독립의 중요성을 설파한 독립운동가이다. 파리강화회의의 한국대표로 파견된 인물로 《한국의 독립과 평화》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한국의 상황을 알렸다.



- 정몽주는 최루백을 가리켜 ‘동방의 유종’이라 칭송하였으며, 세종대왕은 효행의 본보기가 되도록 최루백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남기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책으로 효자, 충신, 열녀의 이야기로 세종 때 만든 이 책의 이름은 《삼강행실도》이다.
- 원효대사는 661년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는 중 화성시 당성 근처에 이르러 토굴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원효대사는 한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눈을 떠 보니 해골에 고인 물을 마셨다는 것을 알고 토약질을 하였다. 스님은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어 당나라 유학길을 접고 신라로 돌아와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다.
- 혜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부인이며, 정조의 생모이다. 팔십여 년의 일생 중 칠십 여년을 삼엄한 궁중에서 생활해야 했던 여인으로, 한 많고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기 위해 그녀의 궁중 인생이 녹여진 《한중록》을 집필했다.
- 조용필은 1950년 3월 21일, 경기도 화성군(현 화성시) 송산면 쌍정리에서 태어났다. 26세가 되던 1975년에 솔로로 전향하여 발표한 트로트 음악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후 처음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으며, 인기곡으로 <서울 서울 서울>, <모나리자>, <못찾겠다 꾀꼬리> 등 수많은 곡이 있다.

#화성시의 지역자랑

- 화성을 대표하는 8곳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모아 우리는 ‘화성 8경’이라고 한다.

용주범종(龍珠梵鐘) : 용주사 경내의 범종

제부모세(濟扶모세) : 하루에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제부도 모세기적

궁평낙조(宮坪落照) : 궁평리 해수욕장에서 맞는 낙조의 아름다움

남양황라(南陽黃羅) : 남양간척지에 펼쳐지는 가을의 황금들판

입파홍암(立波紅岩) : 태고의 신비가 감추어진 입파도의 붉은 기암괴석

제암만세(堤岩萬歲) :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남양성지(南陽聖地)

-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포도는 우수한 품질로 사랑받고 있다. 매년 ‘화성송산포도축제’가 열려서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해 준다.
- 용건릉은 2009년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엔에 속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 화성시에는 피곤함을 풀 수 있고 건강에도 좋은 월문온천, 울암온천, 발안식염온천 등 온천장이 여러 개 있다. 온천은 지하수가 지열에 의해 평균기온 이상으로 지표로 용출되는 샘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온천은 화산지대에 많이 분포한다.
- 나래울 화성시종합복지타운은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성 문화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을 하나로 통합한 복지시설이다. 나래울 종합복지타운은 경기도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1급 인증서를 획득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건물이다. 배리어 프리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을 뜻한다.



- 반석산에 자리한 시립 반석산 에코센터에서는 생태체험 및 교육을 운영한다.
- 화성종합경기타운은 국제 수준의 시설과 규격을 갖춘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42,700여 석의 관람석과 1,900대의 대규모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야외 광장에는 열린 잔디마당 등 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연 생태체험, 청소년, 중장년층 레포츠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 공간이다.

#화성시의 지명

- ‘궁평리는 옛날 궁에서 관리하던 땅이 많아 ‘궁평’ 또는 ‘궁들’이라 불렀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 전곡항은 지중해풍 엽서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푸른 바다와 하늘, 하얀 요트 그리고 유람선을 타고 근처의 섬까지 둘러볼 수 있다. 전곡항에서는 매년 뱃놀이 축제도 열리고 있다.
- ‘병점’은 떡전 거리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예부터 삼남(三南)으로 통하는 길목이어서 쉬었다 가는 행인들이 많았고 이들을 상대로 떡을 파는 떡장수들이 많아 마을을 ‘떡전거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 ‘삼천병마골’은 수원에서 발안으로 가는 길 봉담읍 상리에 나지막한 고개를 이르는 말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 3천 병마가 매복하여 오산시 독산성에서 물러나던 왜병을 덮쳐 몰살시켰다는 것에서 마을 이름을 ‘삼천병마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능동’은 고려 때 이곳에 아기능이 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정조가 사도세자의 능을 화산으로 옮기고 수시로 능행차를 하였는데, 이때 정조가 행차 시에 이 마을에서 부왕의 능을 바라보며 부왕이 편히 잠드시기를 빌고 기원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이 마을 이름을 편안한 마을 이라는 뜻으로 ‘안녕리’로 불렀다고 한다.
- ‘와우리’라는 마을은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지형이 ‘소가 누워있는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 화성시 마산포가 크고 으뜸가는 포구임에 반해 손포는 작고 좁은 포구로서 현지에서 ‘손개’로 불린다. 강화도의 손돌과 같은 유형의 지명인데 이를 두고 손(孫)씨가 많이 모여 사는 갯벌마을 이란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문화, 유적

- 남양향교는 남양동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공립학교다. 입구에는 하마비가 있고 동재와 서재의 기숙시설이 있다. 대성전에는 중국과 우리나라 선현을 모시고 있으며 유림들이 봄, 가을로 제향을 올리고 있다.
- 청금록은 향교소속 유생들의 학생기록부이다. ‘청금’은 푸른 옷소매란 뜻으로 푸른색 옷을 입는 유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름, 자, 생년, 본관이 기록되어 있고 남양향교의 청금록도 현재까지 남아 있다.
- 반송동 행장골유적에서는 삼국시대(백제) 탄요가 발견되었다. 탄요는 숲을 구워내던 시설로, 반송동 탄요에서는 철을 만드는데 필요한 백탄을 만들었다고 한다.
- 청계중앙공원에는 동탄 신도시 개발을 위한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다양한 시기의 유적들의 옮겨 복원해 두었다. 문화재마당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시민들은 현재 공간의 옛 역사를 알 수 있다.
- 남양도호부는 오늘날의 시청과 같은 곳이다. 남양도호부에서 수령의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의 이름을 내아 라고 한다. 내아는 지금도 남아있는 남양도호부 관아의 일부이다.
- 현재 남양도호부 내아는 ‘남양풍화당’으로 불리고 있다. 1910년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일본은 남양도호부 관아의 건물을 뜯어 면사무소와 경찰서 등을 짓는데 사용했다. 이때 관아 건물이 대부분 훼손되었는데, 남양풍화당 어르신들이 내아 건물을 사들여 보존해 주었다. 이때부터 남양도호부 내아가 ‘남양풍화당’으로 불리게 되었다. ‘남양풍화당’은 1853년 남양도호부 양반들이 이 지역의 풍속을 교화시키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